

지역 소식통



완주군-완주군의회  
인사교류 협약 체결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상호 균형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진행된 협약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를 균형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출입 형태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유익식 완주군의회의장은 "오는 첫 번째 인사부터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한 두 기관의 우수한 인재들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공모' 선정

김제시는 전북특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중인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2개 지구가 선정되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에서는 사업 시행 첫해부터 성덕면에 서비스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생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용지면이 추가 선정되면서, 과소와 된 농촌의 사회서비스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덕면은 지역의 사회서비스 조직을 법인화하고, 교육서비스, 행복이동점 등 지역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주민공동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용지면은 생생마을관리소 운영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비상시국 민생안정 총력

소상공인 민생안정 간담회 개최... 완주사랑상품권 25억 추가 발행 등 지원책 마련

완주군이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각 기관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공유하고,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했다.

30일 완주경제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소상공인 진흥공단 완주센터,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주지점, 전북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완주지부, 완주군 소상공인연합회, 완주군 자영업 소상공인연합회, (사)한국여성 소비자연합 완주지부, 삼례시장 상인회, 봉동생강골시장 상인회, 고산미소시장 상인회, 완주군 품목 농업인 연구회장 등 각 기관 대표 3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2.3 계엄선포 및 탄핵정국에 따른 비상시국에 대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나누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완주군은 비상시국 대응 방안으로 완주사랑상품권 1월 발행액을 25억으로 증가 발행할 예정이며, 추가 캐시백 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완주군(완주군 통합유통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전채상품 10% 할인 및 입점사 할인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도 빠른 시일에 시작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전통시장에서 완주사랑상품권을 이용시 추가 캐시백 5%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7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 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지 주민과 간담회 가져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토지수용 절차 설명 등 소통 이어가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7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재천 부의장이 나서 마련한 자리로, 최광호 의원과 LH 관계자, 해당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지 수용절차와 보상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완주군에 조성예정인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는 2030년 조성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LH, 전북개발공사와 지난 6월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수용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재천 부의장이 주민들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천 부의장은 "수소특화국가산업 단지는 완주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남은 절차이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와 같은 간담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165만5,000㎡(약50만평)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시, 국가 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확정

2025년 1월부터 2만원 인상... 참전유공자에 월 15만원 지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간 보훈수당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에도 단계적인 보훈수당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도에 이어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이번 인상에 따라 시비 3억 6,4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국가유공자 1인당 월 지급액을 기존 9만 원에서 11만원으로 2만원 인상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금을 포함해 2025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는 월 15만 원, 그 외 대상자에게는 월 1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2월 10일 개정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보상대상자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폭넓은 보훈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려는 김제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보훈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수당은 분기말에 지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 투자기업들 '호응'

공장 등록 인·허가 관련 민원 신속 처리 지원... 한우물 등 6개 기업 만족도 ↑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공장설립승인 등 공장 등록 인·허가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단장인 김희욱 김제시 부시장장을 필두로 투자유치과를 비롯해 청소지원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등 공장 인·허가 관련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처리기한 대비 보완사항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해, 법정 기한보다 더 빠르게 공장증설 허가가 승인돼 기업 측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욱 부시장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행정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장애인 선수 고용 활성화 '앞장'

김제시장애인체육회-에이스증공업, 업무협약식 개최

김제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성주)는 30일 김제시청 시청실에서 (주)에이스증공업과 '장애인체육선수 고용협력기금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이 장애인 선수를 체육 직무로 고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장애인 선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1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 기업체의 의무고용률 제고 및 세제 혜택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수 활동을 병행하여 전문 체육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상생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사회적 가치가 실

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선수 일자리 창출,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제시장애인체육회 정성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고, 기업체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선8기 김제시는 앞으로 장애인과 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